

5» 누구냐 년! 2015 경희인



6» 연재기획: 대학원, 장학금과 학업 사이



2015학년도 1학기 학점포기 신청 안내

대상 : 가. 재학생(졸업유예자 포함)으로 학점포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한 자
나. 휴학생, 수료자, 졸업자는 신청할 수 없음
신청기간 : 2015. 3. 16(월) ~ 3. 20(금)
가능학점 : 졸업 전까지 총 6학점 이내



지난 11일 서울캠퍼스(서울캠) 청운관 앞에서 '성적평가제도 대응 선포식'이 서울캠 총학생회(총학)와 서울캠 중앙운영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선포식에서 총학 강필준(자율전공학 2012) 부회장은 "지난해 '성적평가 협조요청' 논란에 이어 대학본부가 올해도 유사한 방법으로 성적평가제도를 바꾸려고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마을, 청춘에 아로새긴 낙서의 흔적들”

문화 - 당신이 지나친
'가장 가까운 이야기' -#1

이시은 기자 dltidms77@khu.ac.kr

#대학가는 다양한 기억들이 서린 '추억의 장소'다. 끊임없이 사람이 떠나고 또 들어오며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그 곳. 당신이 무심결에 지나치고 있는 그 곳에는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있다. 우리의 곁에서 시간과 함께 차츰 쌓여가고 있는 그 많은 이야기들을 대학주보가 살펴보고자 한다. 앞으로 이어질 <당신이 지나친 '가장 가까운 이야기'>들은 온라인 대학주보(<http://media.khu.ac.kr>)에서 만나볼 수 있다.



국제캠퍼스 정문 옆의 작은 골목. 술집들의 벽 곳곳마다 학생들의 흔적이 가득하다. 사람들의 눈길에 닿지 않는 후미진 골목 안 쪽으로는 작은 쪽문 두 개 만이 학교와 이어져 있다. 이 곳에 처음 발을 디딘 새

내기들은 “선배, 여기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요”라며 어떤 경계심 비슷한 감상을 꺼내놓는다.

하지만 그랬던 새내기들은 4년, 5년이 지나 캠퍼스를 떠날 때가 되면 십중팔구 이 곳을 정겨운 마음의

고향처럼 여기게 된다. 캠퍼스에 발을 디딘 무수한 사람들의 진한 추억이 배인 곳, 오래된 외연에도 항상 새로운 열기로 가득 찬 곳, 이곳은 통칭 ‘마을’이라 불리는 곳이다. “여기 터 잡은 지도 벌써 36년째지. 그동안 참 많기도 변했어.”

커다란 철관 앞에서 갖은 채소와 양념 속에 버무려진 떡볶이를 꼼꼼하게 휘젓고 있는 이차응(75) 할머니는, 당신이 특 내뱉는 말처럼 깊은 세월의 흔적이 여러 갈래로 패여있는 손을 갖고 있었다.

이 할머니는 마을 안에서 가장 오래된 분식집인 ‘아빠장 분식’을 홀로 운영하고 있는 ‘마을의 터줏대감’이다.

▶8면으로 이어짐

Newsmaker

총여학생회
금혜영 (아동가족학 2012)회장



“성폭력사건 가해자 끝까지 처벌해야”

방누리 기자 nurib423@khu.ac.kr

대학가의 빈번한 성추행 및 성희롱 사례들이 뉴스로 쏟아지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잘못된 사람이 마땅한 처벌을 받지 않거나, 학교로 다시 복직하는 등 사건이 흐지부지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서울캠퍼스 총여학생회(총여)는 관련 규정 변경을 목표로 지난 9일부터 ‘우는 사자’ 캠페인을 통진행하고 있다.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총여 금혜영(아동가족학 2012) 회장을 통해 들어보았다.

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대학주보 제1523호(2012.09.15) 3면> 하지만 징계 및 조치에서 최근 문제가 되는 자진사표, 자퇴 등을 방지하는 내용은 없는 상태다.

금 회장은 이런 부분을 문제로 짚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사건 조사 중에는 가해자의 사직서를 처리하지 않는다’는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가해자의 사직서 수리는 학교 명성만 생각하는 것”

규정 신설은 교무위원들로 구성된, 교무회의를 통과해야만 한다. 하지만 교무회의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의견을 피력하거나 안을 상정할 수 없다. 이에 규정이 통과되기를 밖에서 기다리기 보다는 캠페인을 통해 여론을 형성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에도 ‘레드파라솔 DAY’ 등의 활동을 통해 규정변경을 시도했지만, 학생들의 인지도를 높이는 수준에서 마무리된 것을 감안할 때 보다 구체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특히 지난 13일 기준 ‘우는 사자’ 캠페인에는 30~40명만 참여 중이다. 금 회장은 “현재는 시작한지 얼마 안 돼 참여가 적지만, 다음 주부터 총여 서포터즈와 함께 본격적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금 회장은 “학교가 사건 직후 가해자의 사직서를 처리하는 것은 학교 이미지와 명성만을 생각하여 가해자를 보호해주는 것”이라며 “가해자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른 곳에서 강의를 하거나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걱정하지 않도록 학교가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여성은 태어나지 않고 만들어진다! 《제2의 성》

후마니타스칼리지 - 대학주보 공동기획, 고전의 사계 ㉔

이정순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시몬 드 보부아르(1908-1986)에게는 소설가, 철학자, 사르트르의 동반자, 저널리스트, 극작가, 회고록 작가, 참여지식인, 급진적 페미니스트 등 다양한 호칭이 따른다. 이처럼 많은 호칭은 생전에 보부아르가 전 생애에 걸쳐 지칠 줄 모르고 정열적으로 활동한 다양한 면모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20세기 페미

니즘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점에서 보부아르는 현대 여성해방의 선구자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되어지는 것이다

오늘날 페미니즘을 논하기 위해서는 시몬 드 보부아르라는 이름과 그의 대표적 저서 《제2의 성》에 나오는 유명한 명제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되어지는 것이다. On ne naît pas femme, on le devient.”를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 문구는 필경 보부아르의 작품과 참여활동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으로 남을 것이다.

《제2의 성》은 1949년 출간 당시, 프랑스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여성해방을 목표로 한 이 책은 당시 프랑스 가부장적 사회에 폭탄을 던진 것과도 같았다. 여성

을 남성 주체의 ‘타자’로서 종속적인 상황에 놓여 있도록 한 ‘여성성 feminite’의 신화와 모성, 사랑, 성차 등에 대한 신화의 허구성을 드러내면서 양성 간의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주장한 것이다. 그 때문에 보부아르는 마르크스주의자에서부터 가톨릭교회에 이르기까지 좌우를 막론하고 보수적인 남성 지식인들의 거센 반발과 비난을 받았다. 모리아크, 카뮈 등 일부 남성 지식인들은 보부아르에 대한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다.

▶7면으로 이어짐

알림

대학주보 온라인 ‘이슈스트림’ 서비스

(media.khu.ac.kr/khunews/issue_stream)



매일 같이 쏟아지는 정보의 시대 속에서, 중요한 이슈에 대한 흐름과 맥을 읽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학주보는 각 키워드별 관련 기사를 시기순과 호응도순으로 정리해, 독자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슈를 읽어낼 수 있도록 ‘이슈스트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기고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송주빈 (전자전파공학 교수) >> 7면

